







사회적경제연구회 제4회 워크숍

# 사회적 경제 사례 연구

-일본과 성미산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1. 5. 3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제4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계획

### 1. 개요

- 일시: 2011년 5월 3일(화) 14시~17시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 2. 목적

- 일본의 사회적경제와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함

### 3. 주요내용

- 주제발표
  - ▷ 일본 사회적 경제의 이해
    - 강내영(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 ▷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토론
  - 연구회 지정토론자 등 참석자 전원
- 기타논의
  - 제5회 연구회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공지

#### 4. 행사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10	10	◆ 참석자 인사	
14:10	14:50	40	◆ 발제자 발표 (강내영 - 일본 사례)	
14:50	15:30	40	◆ 발제자 발표 (조경민- 성미산 사례)	
15:30	15:40	10	◆ 휴 식	
15:40	17:00	80	◆ 종합토론 및 정리	

#### 5. 사회적경제 연구회 내부 참석자(전략과제 진행)

구분	연구자	전담분야 및 소속	비고
원내	원장님	총괄	
	임준홍	실태분석, 선진사례, 대응방안	공동책임
	김양중	이론, 실태분석, 대응방안	공동책임
	송두범	실태분석, 대응방안	
	고승희	선진사례, 대응방안	
	이관률	이론, 실태분석(네트워크, 연대분석)	
	허남혁	실태분석, 대응방안(로컬푸드)	
	여형범	이론, 실태분석	
	문정환	실태분석, 사례분석	
	김종수	이론, 사례분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6. 사회적경제연구회 외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전문분야	이메일	전화번호
박영송	충청남도의회	ysong71@hanmail.net	
이은애	씨즈	aeunle@hanmail.net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poolppuri@gmail.com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tjlets@hanmail.net	
서정민	지역재단	jmsuh@krdf.or.kr	
박상우	홍성풀무생협	chamngo@empal.com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경제학)	bauiro@mokwon.ac.kr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	jseeun@cnu.ac.kr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rieudm@cnu.ac.kr	
이정만	공주대 교수(행정학)	leejm21@kongju.ac.kr	
김혜원	교원대 교수(경제학)	hwkim@knue.ac.kr	
추 욱	충남도 사회적경제계장	hopechuuk@korea.kr	
임호범	금강일보	comst2005@hanmail.net	
김민숙	씨즈	min@theseeds.asia	
명경화	씨즈	myoung@theseeds.asia	
김지철	충청남도 도의원	saramaul@hanmail.net	
박정현	대전광역시 시의원	smallpark21@dreamwiz.com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gabeeya@hanmail.net	
김종문	충청남도 도의원	kim2086@hanmail.net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chungnamedu@hanmail.net	
최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minicht@hanmail.net	
이원호	(주)푸드코리아	ju0547@fooco.kr	
홍은영	(주)푸드코리아	cyberap68@naver.com	
박찬무	(주)즐거운밥상	coldmoo72@gmail.com	
윤성웅	연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loveu71@nate.com	
류철식	다인복지연구소	rch3927@nate.com	
이재국	얼굴있는먹거리	uridemo@naver.com	
남지현	얼굴있는먹거리	0102njh@hanmail.net	

## 7. 이후 일정

<표> 연구회 워크숍 전체 일정

구분	일정	논의 내용	전문가 초청 발표자	비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	3월 25일	-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김신양(성공회 대학교)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 크 구축
	4월 1일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 충남도 현황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
	4월 19일 (화)	- 영국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
	5월 3일 (화)	- 일본의 사회적 경제 - 성미산 마을만들기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실태 분석	5월 19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여건분석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문 회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 및 실제	6월 8일 (수)	- 원주의 사회적경제 - 대구·경북의 사회적경제	최혁진(원주의료생협) 류병운(대구경북사회적 기업지원센터장)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 크 구축
	6월 23일 (목)	-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 사회적경제와 기금(펀드)	박현숙, 김성훈(한발렛츠)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
	7월 14일 (목)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포괄) - 농협, icoop, 한살림, 주거협동 조합(구체적)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월 28일 (목)	- 사회적경제와 시민단체(포괄) - 풀뿌리사람들(구체적)		〃
	8월 18일 (목)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CB) -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을 활 용한)지역개발	유정규(지역재단) 김달수(경기도의원, 前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
	9월 8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
	9월 22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정책 제안 1		
	10월 6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정책 제안 1		
	10월 20일 (목)	- 종합정리 및 정책화 방안 제안 - 향후 운영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하드(자료 공유)

-

# [ 목 차 ]

## 〈발표원고〉

- 일본의 사회적경제 ..... 7
-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 29

## 〈참고자료〉

- 사회적기업과 주민센터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연구 ..... 41





# 일본의 사회적경제

강 내 영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 일본의 「사회적경제」

2011. 5.3  
강 내용

## 강의 순서

1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의와 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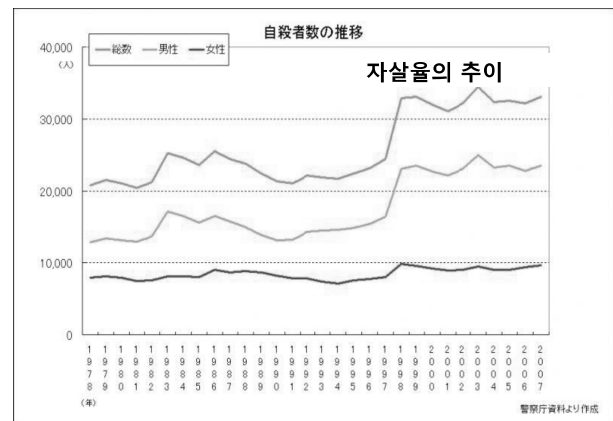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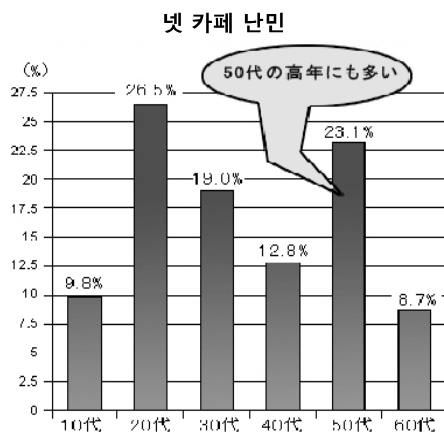
일본 『사회적경제』의 실제 사례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1.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의와 현황

-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 라이프스타일이나 근로환경의 변화와 동반하여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개호·복지, 지역 재생, 마을만들기, 환경보호, 빈곤문제의 대두
- 나아가, 커뮤니티의 붕괴로 인해 노인의 고독사, 자살, 소년살인, 학교 및 사회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 사회적 병리가 확산되고 있음
- 출생률 저하·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영역」 구축의 중요한 근간으로 「사회적경제」 기대



## 1) 정의

◆2002년6월20일 "Social Economy Europe"의 선언에 의한,

- ① 자본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목적이 우위성
- ② 자발적으로 열려있는 멤버쉽
- ③ 멤버쉽에 의한 민주적 통제
- ④ 멤버·이용자 및 일반이익의 결합
- ⑤ 연대와 책임의 원칙적용 양호
- ⑥ 자율적 경영과 공적 권위로부터의 독립
- ⑦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멤버의 이익 그리고 일반 이익을 위해서 이용

\* 今村(이마무라) 외 다수의 학자들이 일본의 사회적경제의 정의로 인용

## 2) 연구 및 적용 동향

●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주로 유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이태리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영국의 CIC(커뮤니티 이익 회사) 등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면에서 보자면 일본에서는 사회적경제 라는 용어보다는 연대경제나 NPO라는 용어가 더 대중적.

### ● 분류하자면,

#### • 연구자 그룹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유럽에서는 제3섹터로 정의하기도 하나 일본에서는 민관 합자회사를 제3섹터로 사용함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협동경제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함.  
주로 유럽(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연구 중심.

#### • 정부나 지자체

NPO활성화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에서도 소셜 비즈니스(SC)라는 이름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움

• 민간 : 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정무역, 유기농, 지역통화, 협동조합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연대 경제 포럼>을 주도하고 있음

• 그 외 :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함께 “반 빈곤연대그룹”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배제 즉 취약계층운동그룹이나 이를 지원하는 연구자 그룹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대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짐.  
에티크 등의 청년그룹은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동이 활발.

### ◆ 일본의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조직 분류

- 협동조합(각 협동조합법에 준거한 법인)
- 노동자 협동조합(근거 법이 없음)
- 워커즈 컬렉티브(근거 법이 없음)
- 비영리조직(NPO법인,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기업(SB)
- 커뮤니티 비즈니스(CB)등

### 3) 일본의 「사회적경제」 현황

#### (1) 협동조합

일본에는 1956년에 일본협동조합연락협의회(JJC)를 설립해서 각종 협동조합운동의 연계와 ICA의 총회등에 참가를 시작한 협동조합의 국제활동에 관련된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ICA회원조직인 JA전농, JA공제연, 농림중금, 이노히카리협회, 일본농업신문, 일생협, 전국어협연합회, 전국노동공제협동조합,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및 대학생 생협연대 등 12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등 총 17개에 이르는 각각의 개별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은 42개 조합이다.

여기에 노동자협동조합과 워커즈컬렉티브는 각각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 ● 대표적으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생협)을 들 수 있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1948년 법률 제200호)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지역(광역단위에 한하여)에 사는 사람들,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만들기 위해 상호부조에 의한 자발적인 조직의 비영리단체

#### ● 조합의 원칙

- 일정의 지역에 의한 사람과 사람의 결합(상호부조 조직)
- 조합원의 생활의 문화적 경제적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것
- 가입, 탈퇴의 자유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이 평등
- 조합원 이외의 자는 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다
- 특정의 정당을 위해서 조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 조합의 사업

-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 의료, 식당 등의 협동시설의 이용사업
- 화재, 생명 등의 사고에 대해, 공제금을 급부하는 공제사업
- 조합사업에 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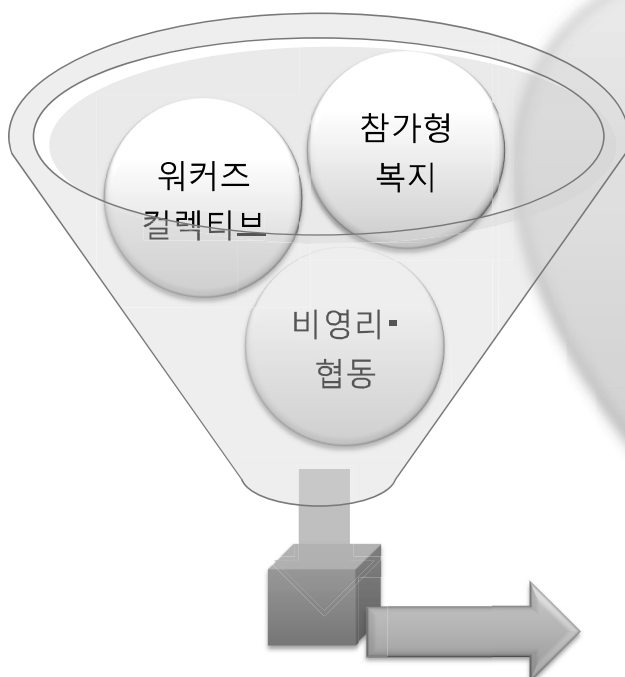
#### ● 현황 (소비생활협동조합 실태 조사에 의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참조

- 조합수 1,036조합 조합원수 6,334만명

##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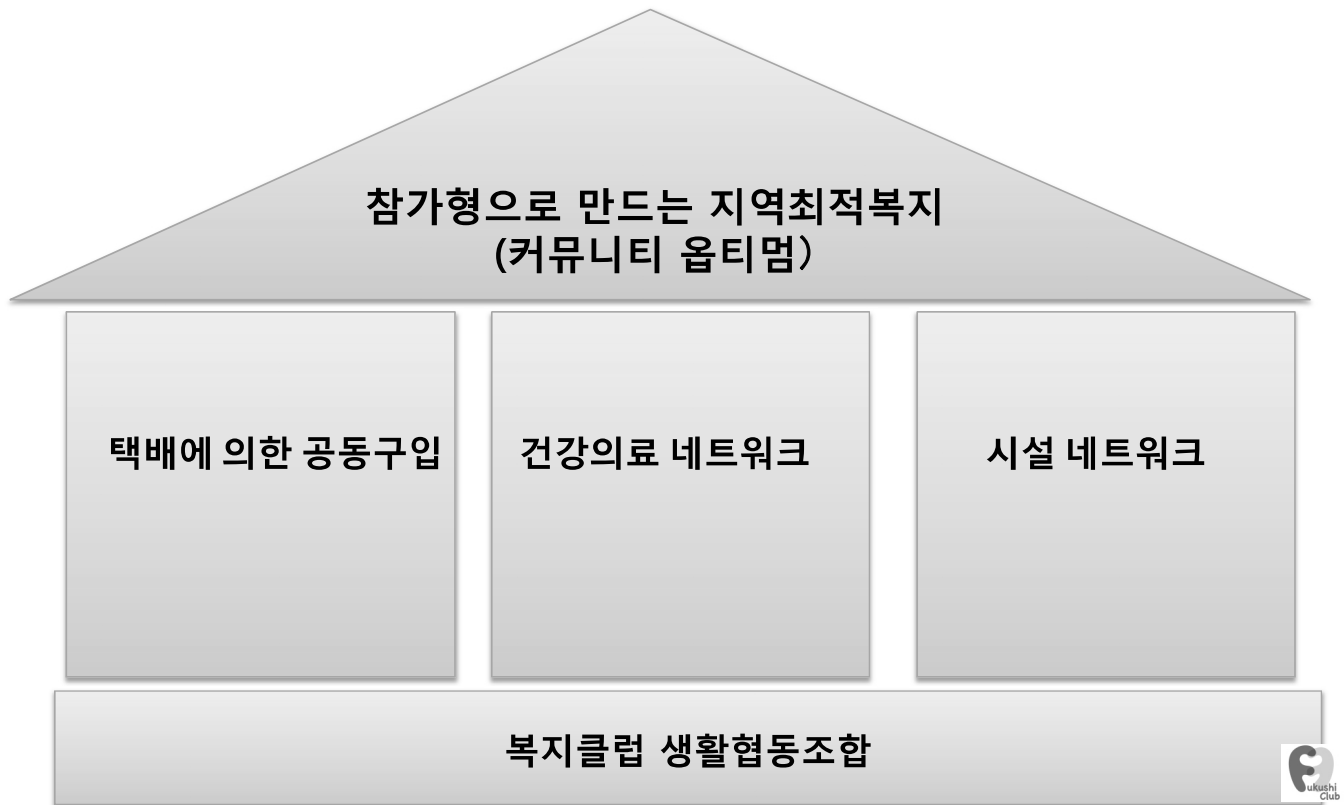
## 활동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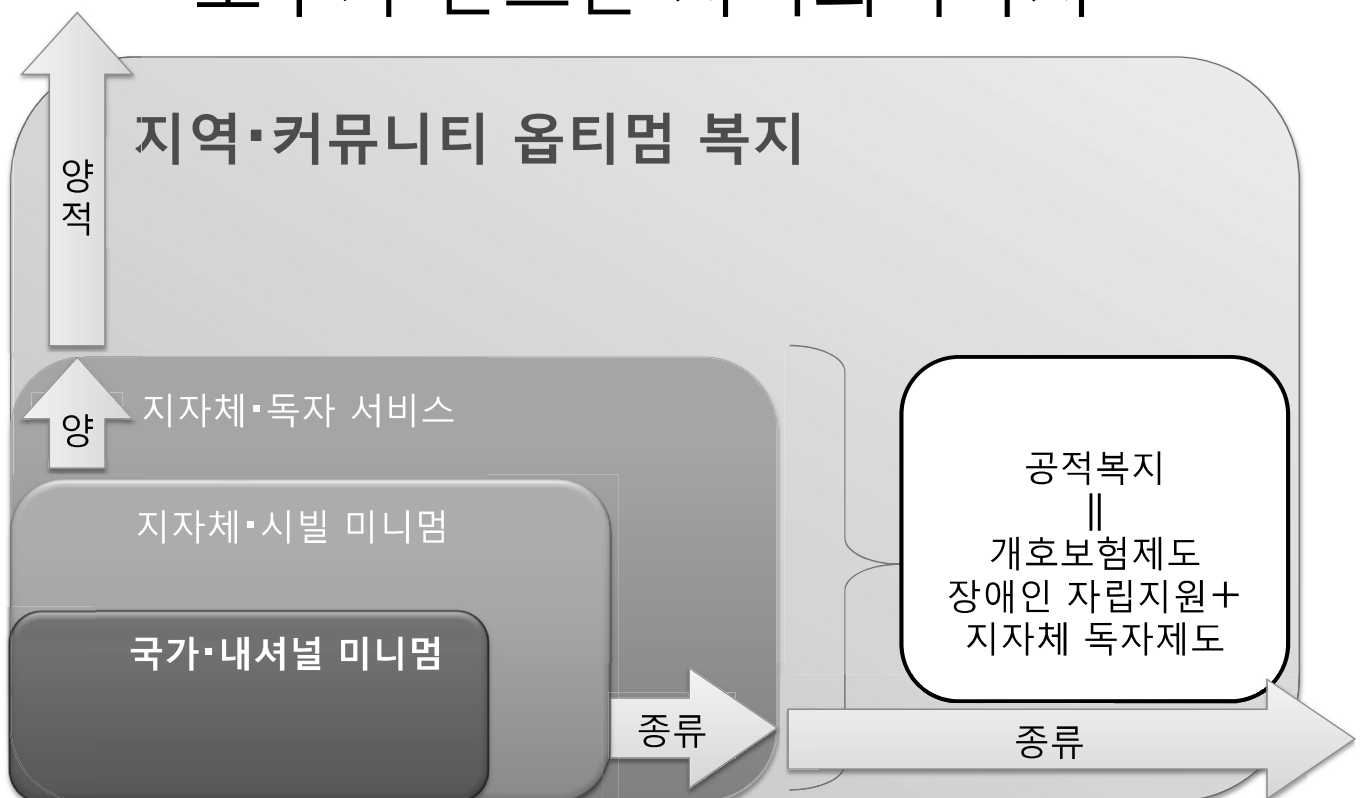
고령이 되어서도, 장애가  
있어도, 생활이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싶다.

재택복지 지원시스템 만들기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부상조의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 재택복지 지원시스템 만들기의 3가지 주요근간



## 모두가 만드는 지역최적복지





# 복지클럽 개요

- 명칭 :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
- 설립 : 1989년 4월
- 사업 : 공동구입·복지·시설·이용· 공제수탁
- 조합원수 : 15,261명
- W.Co인 수 : 2,788명
- W.Co수 : 84단체
- 임직원수 : 44명

## 2008년도 사업액 (사업별 내역)

공동 구입:	27억4200만엔
복 지 :	6억6300만엔
시 설 :	2억8900만엔
이 용 :	6700만엔
공제수탁 :	1600만엔
총사업액:	37억7800만엔



## (2) 노동자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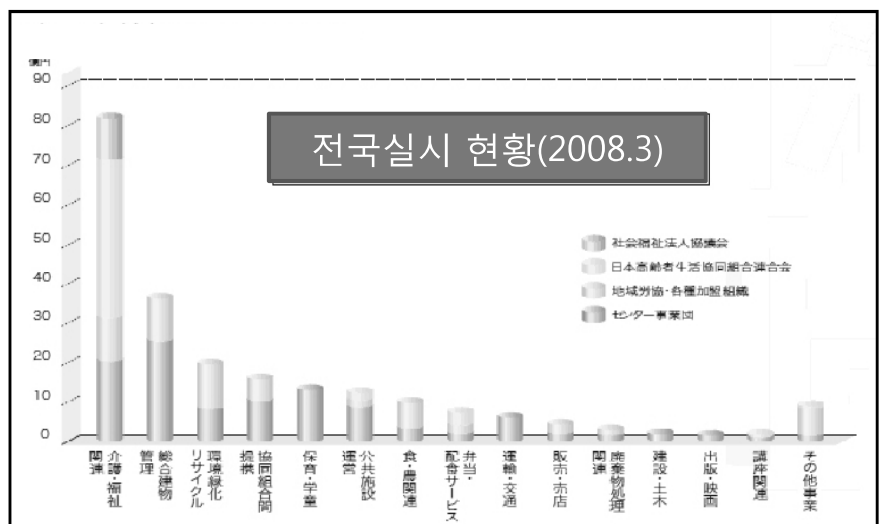
노동자 자신이 출자하고 소유와 관리를 하는 협동조합.

일본의 경우 일본 패망 후 복구사업에 투여됐던 노동자들의 실업자 운동에서 시작됨. 전체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주로 청소나 리사이클 등에서 출발하여 개호보험 도입 이후에는 개호 복지 비중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공공 시설 위탁의 지정 관리자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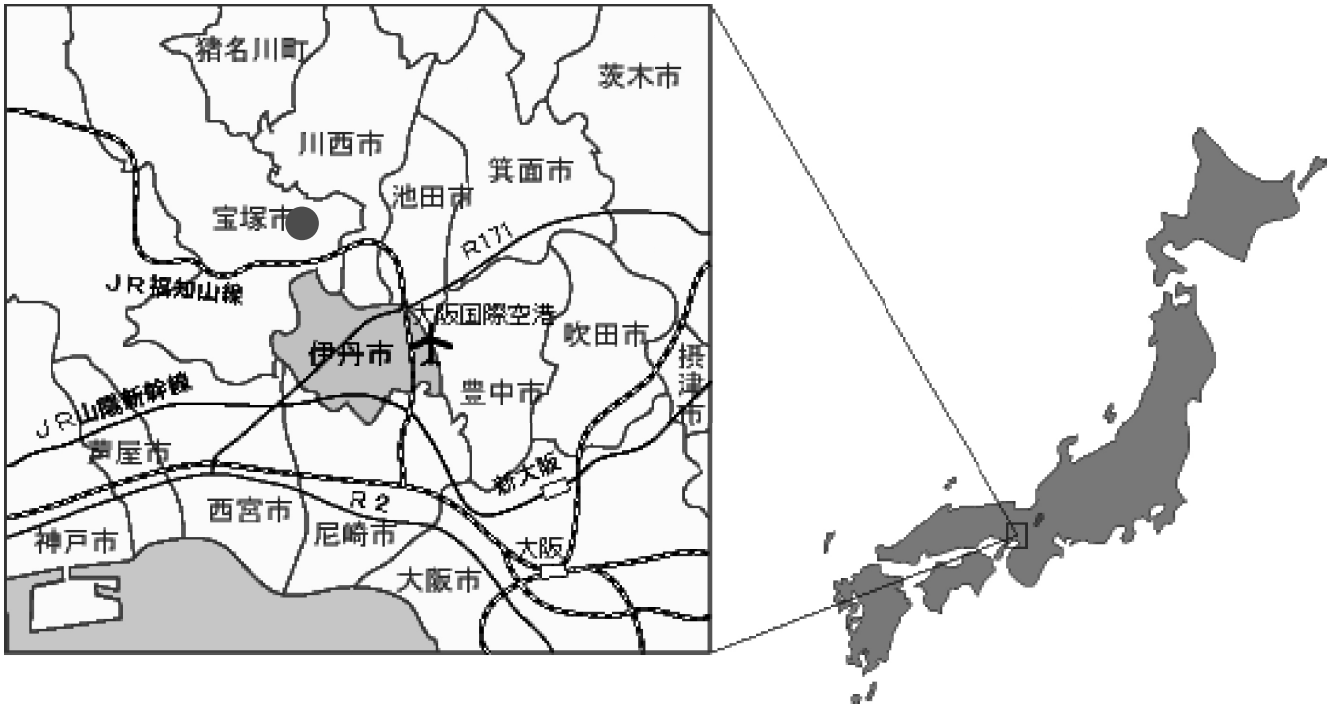
### 총 사업비 :

228억 5,400만엔

- 노동자 : 10,903명
- 고령협동조합 조합원 : 36,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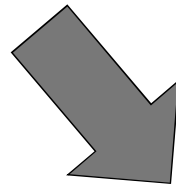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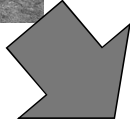


# 이타미 노동자협동조합 Itami city



집들이기







### (3) 워커즈 컬렉티브

- 일하는 사람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누구라도 대등한 입장에서 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술과 문화, 경험을 살려서 모아내고, 스스로 생활하는 지역 속에서 협동해서 일하는 것
- 고용노동이 아니고, 무상노동(볼런티어)도 아닌, 유상노동=커뮤니티 워크라는 일하는 방식을 실천
- 「조치, 서비스 제공자 윤리(경영윤리·이윤 추구)」가 아닌, 언젠가 자신도 사용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의 투자윤리(돈·이윤 추구)의 마을만들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마을만들기를 실천.

## 다양한 W.Co

전부 17업종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부상조

## (4) NPO

-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시민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NPO활동을 참고로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 제정
- 2000년 11월 내각부 조사: 전국에 8만 8천개 시민활동단체(NPO법인과 임의단체)
- 2011년 2월 28일 현재 4만2천 1백 20개의 NPO 법인 활동 중이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특히, 지역에서 행정과의 협동이라는 방식을 통하면서, 행정과 협동함에 있어서 룰을 만드는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 문제로는 자금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성의 담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사회기업가의 개념이 보급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담당할 주체로써도 중요하게 기대됨.
-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인큐베이팅 및 교육과 컨설팅, 매칭 기능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 오사카 NPO센터, 다카라즈카 NPO센터 등이 있다.

### 사례 1

東京都(동경도) 武蔵野市(무사시노시)의  
<아버지 어서 돌아오세요> 파티

### 살롱 개최

전국의 각 지역별 NPO단체 중심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의 지역  
적응 및 안착

NPO단체와 희망자 매칭 사업

그 외의 예 : 오치아이 삼세대 교류 살롱, 히가시구루메시 단과세대네트  
워크, 아라가와구 지역활동살롱 플랫폼 등 지역별 활발히 진행

## 사례 2

### 커뮤니티의 복원과 상점가의 재생을 위한 실험 "NPO법인 ぐらす・かわさき(그라스 가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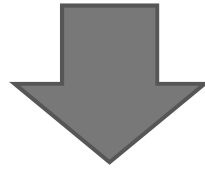
가와사키시는 동경도와 인접해 있는 가나가와현에 속한 정령지정도시이다.



#### 그라스 가와사키: 2001년 1월 28일 탄생

##### \*지역의 문제 발견

1. 보육의 문제-우울증, 아동학대
2. 노인의 문제-공간이 없다.
3. 상점가 쇠퇴의 문제-상권 기능 상실



#### 지역과제 해결

## (5) CB와 SC

### ● CB가 확산되고있는 배경

-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흐름에서
- 생활환경의 다양화의 흐름
- 지방자치체, 행정과의 파트너쉽, 협동의 추진의 과정에서

### ● 경제산업성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이하 CB)를 소셜 비즈니스(SB)에 포함 되어진 의미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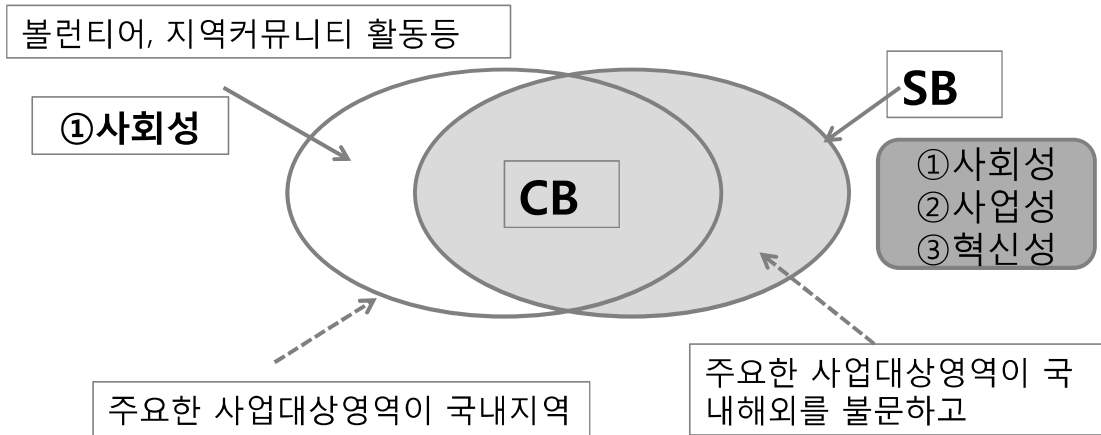
#### · SB의 정의 :

- ① ~ ③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체(주식회사,NPO법인 등의 조직형태는 불문하고)
- ① 사회성 : 현재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는 것을 사업활동의 미션
  - ② 사업성 : ①의 미션을 비즈니스 형태로해서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진행
  - ③ 혁신성 : 새로운 사회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고안  
그 활동이 사회에 확산됨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 ·CB의 정의 :

SB중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자원의 발굴, 활용 등을 비즈니스 기회로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성화나 사회공헌과 사업의 자립·지속적 발전의 양쪽을 실현하고자 추진





## ● 현황(2009)

- 사업자수 : 약 8,000
- 시장규모 : 약 2,400억엔
- 예산액 : 5,7억엔
- 지원책 :
  -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발, 광고 및 보급활동, 네트워크 구축
  - CB/SB 창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환경의 정비
  - CB를 담당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 등
- 고용규모 : 약 3만2천명

## 일본정부의 CB사업 관련한 부서별 정책 (2009년)

문부과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PO를 핵으로 하는 생애학습 활성화 사업</li> <li>• 문화보ランティア 활동 추진 지원사업</li> </ul>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투어리즘 종합추진 사업비</li> <li>• 지속가능한사회 만들기를 담당하는 환경NPO 지원계획사업</li> <li>• 지역의 순환형 사회만들기 지원사업</li> </ul>
농림수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커뮤니티 재생활성화 지원사업/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li> <li>• 농촌활성화 인재육성 파견 지원모델 사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li> <li>•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 등</li> </ul>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고용 개발능력 개발조성금</li> <li>• 지역구직자 고용장려금</li> <li>• 지역재생 중소기업 창출 조성금등</li> </ul>
경제산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지원조직 기능강화사업</li> <li>• 농상공 연계 대책지원사업</li> <li>• 지역활성화 고용촉진자금등</li> </ul>
국토교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재생 사업</li> <li>• 지역재생을 담당하는 인재만들기 지원</li> <li>•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사업등</li> </ul>



## 사례

# 구루메대학 지역만들기 <뭐든지 상담회> (地域づくりなんでも相談会)

## 여기여기 붙어



- \*누구라도 참여 가능
- \*생활밀착형 테마가 중요
- \*편하게 제안하고 진행

## 여기여기 붙어라 방식

<지역만들기 뭐든지 상담회>는 치쿠고강유역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구루메 대학과 행정,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해결책을 생각하는 모임이다.

## '여기여기 붙어라' 방식이란?

### step 1

문제, 테마를 드러내고 모은

### step 2

테마를 제시한 사람이 손가락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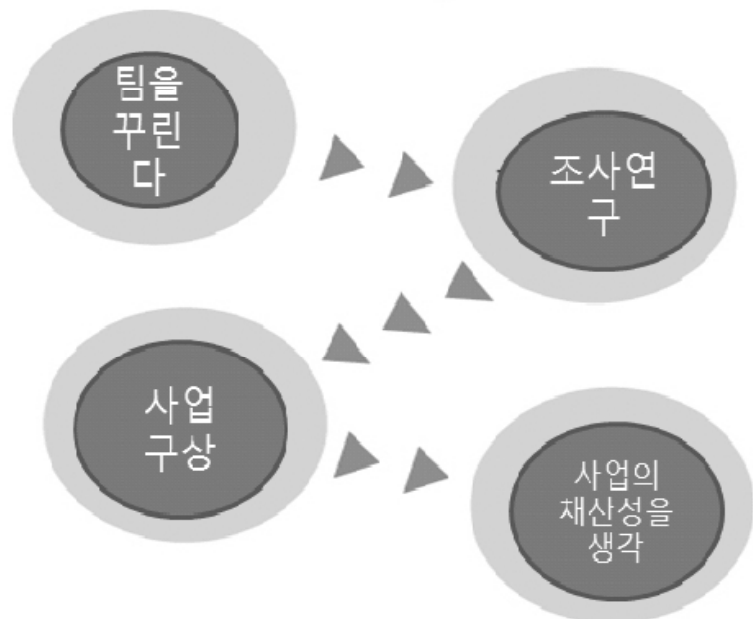
### step 3

외부에서도 동참자를 모집해 팀을 만든다.

の活動は動き出しています。

start

문제해결 및 사업화를 향해



## ■ <지역만들기 뭐든지 상담회>의 장점과 의의

- 기관을 설립했던 프로젝트를 모두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응원해왔다
- 프로젝트의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에 의해 상승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환경상품의 모니터에는 상담회의 네트워크나 지역통화 프로젝트팀, 안부배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사례 : < 그룹홈>을 만드는 팀의 경우

- 1) 개호보험의 공부나 사례조사를 시작, 사업 이미지 만들기
- 2) 토지나 빈집 등을 함께 찾는다
- 3)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설계한다.(조직,운영,자금)
- 4) 관계기관,행정의 협력구조를 모색한다.

## ■ 현재 진행중인 사업

### \*젊은층

학문과 현장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자기개발에 유익 젊은이들이 능력을 탐색하고 사회와 접촉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유를 생각하는 장으로써의 의미

### \* 약물 의존 문제 해결

약물 의존자는 현재 병원 또는 형무소 이외에 갈 곳이 없다. 일상의 생활공간 안에서 약물의존으로부터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 \*가구의 인터넷판매

신뢰로 연결된 인적망을 만들어, 좋은 가구의 판매 및 수리를 행하는 사업 구상

### •치쿠고강 유역의 인공산림 보전 프로젝트

\* 시니어세대 즉 노인세대들의 정보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사업

## ■ 향후 추진 사업

- 치쿠고강을 즐겁게 만드는 모임  
치쿠고강 유역권의 관광진흥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획을 세우고 소개
- 도시와 농촌의 인연만들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시정촌단위가 아니라, 마을과 단지 등으로 계약하여 농산물 특판이나 교류 실시
- 지역만들기 활동자금지원 프로젝트  
NPO등 지역만들기를 하고 있는 단체나, 볼런티어 예금 등의 자금조달방법 고민과 동시에 활동자금 지원
- 지역통화 이용 촉진  
지역통화 이용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촉진 시스템 구상
- 빈점포를 이용한 다각적 교류회  
빈점포를 이용하여 행정, 대학관계자, 시민 등 누구라도 의견교환이 가능한 살롱만들기

##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일본의 사회적 경제 영역 총 정리 속에서  
: 특히, 충청남도 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일본에서 보여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  
스펙트럼이 충남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

## • 정책적 제언

-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자발적, 주체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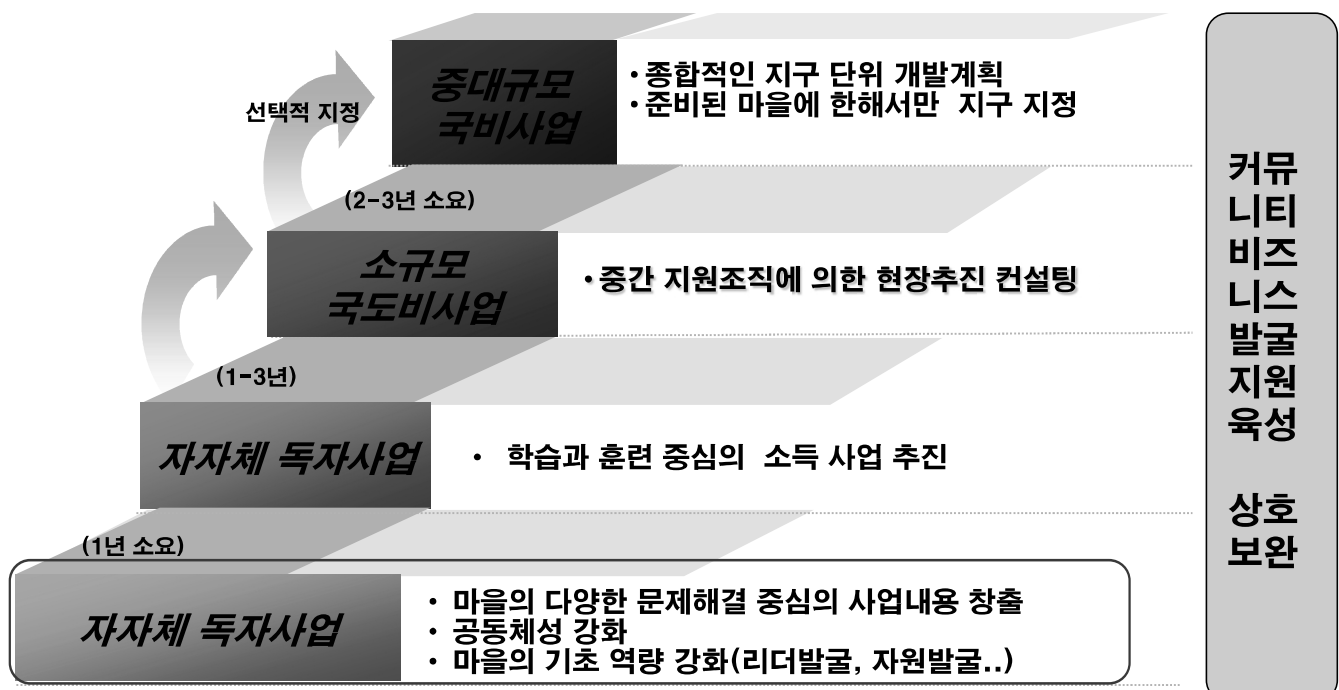
(NPO와 중간지원조직)

- 그 활동 가운데 지속적인 지역과제 해결형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CS 또는 BS로 발전
- 정보의 수집, 공유, 모델의 확산 필요
-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관계망을 통한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 또는 시스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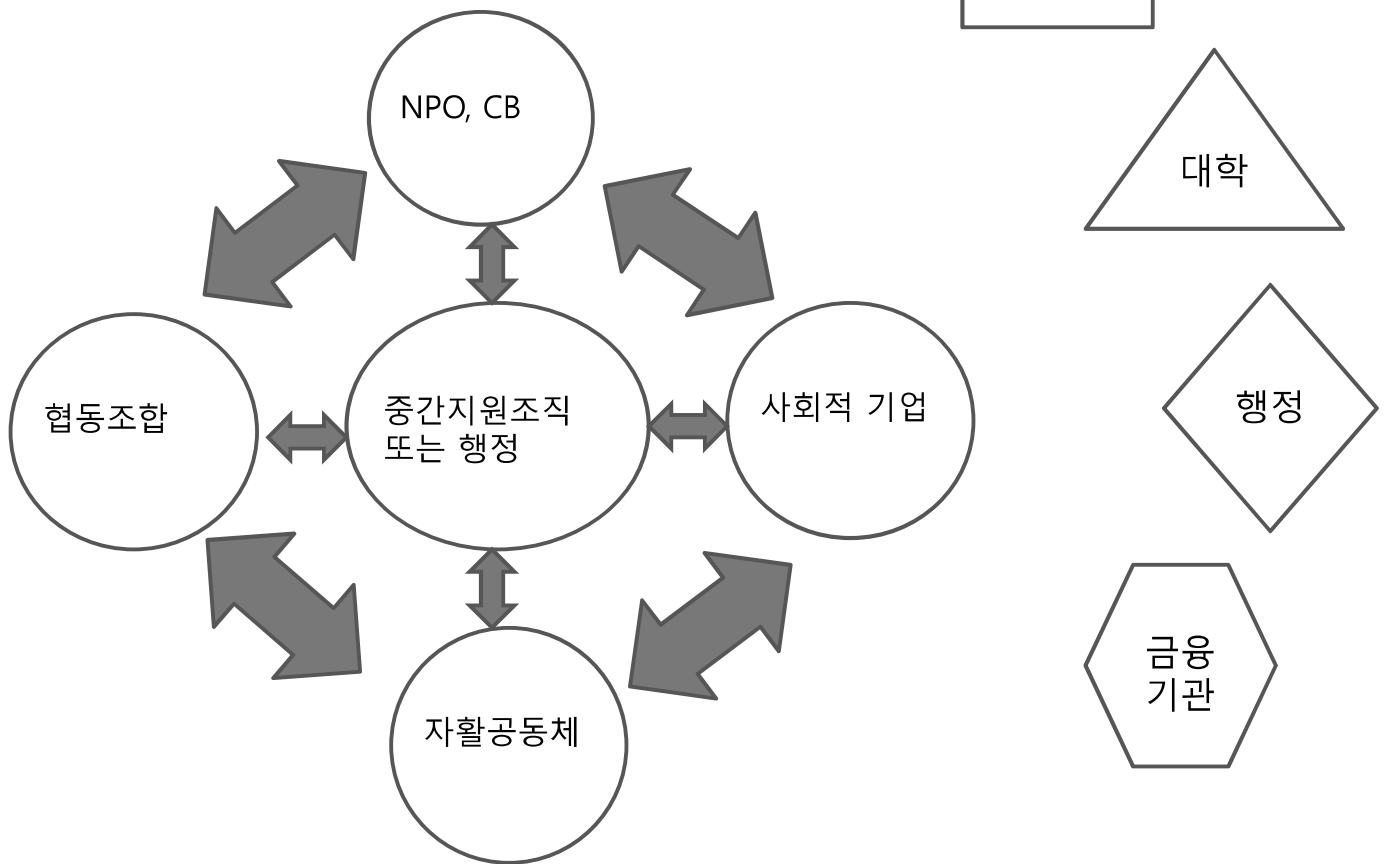
## 제안 : 단계별 지역 육성 계획 수립

→ 행정 지원 시스템 통합 : 담당부서 연합회의

→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 CB, 마을 만들기



# 지역 관계망 만들기





#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조 경 민

( 마포희망 나눔 )





## 개요

어디에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을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

도시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

1,000~3,000명 정도 모여 삽니다

## 성미산마을



## 개념

### 교육

성미산마을어린이집 4곳  
성미산마을방과후  
마포초등학교(성미산학교)  
마을마을터  
마을학원·공립학원

### 경제

마포우려생활  
동네루터  
작은나루  
성미산마을경제  
성미산마을  
비누주회  
성미산발상

### 복지

마포희망나눔  
동촌주회  
의료상담

### 환경

성미산대청위  
자중자주회  
마을환경가게  
복합가정

### 문화

마을극장  
마포FM  
마을축제  
동아리 10여개  
마을아카이브  
마을신문  
문화교육공간

### 자치

(사)사람과마을  
마포마을공동체  
마을경제대표자회의

### 협력

민중의길  
불편마을  
마포로인의길  
마포로인자살인회  
마을경제대표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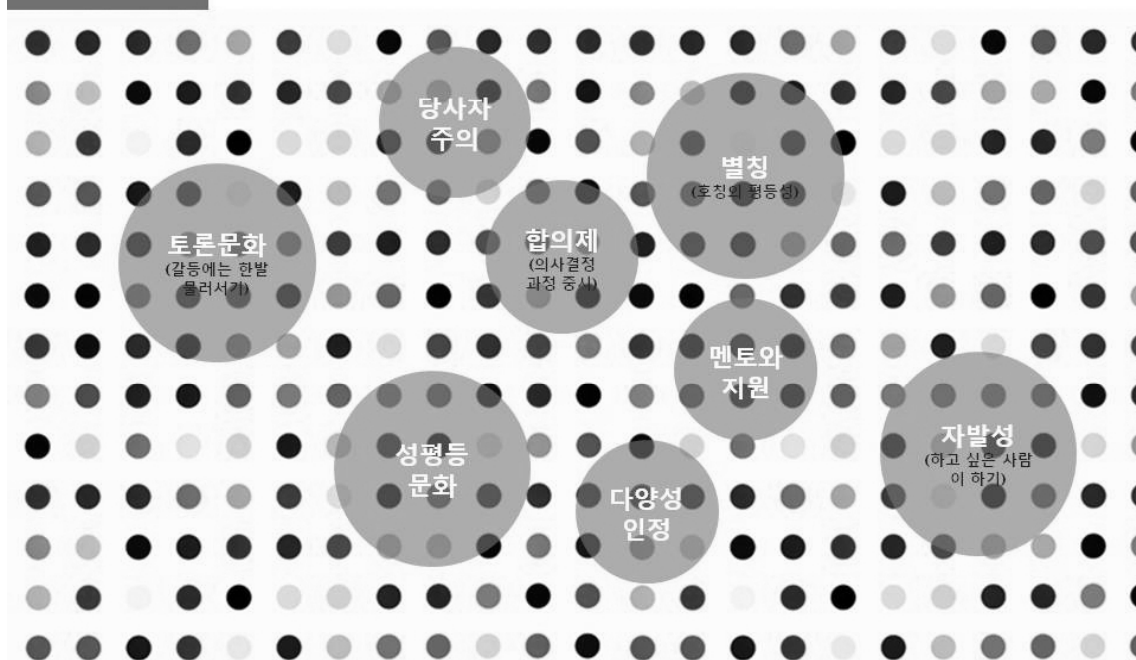
## 지향

### 우리가 꿈꾸는 마을은?



## 문화

### 차이와 공존 - 배려와 연대



## 사회적 경제 ?

###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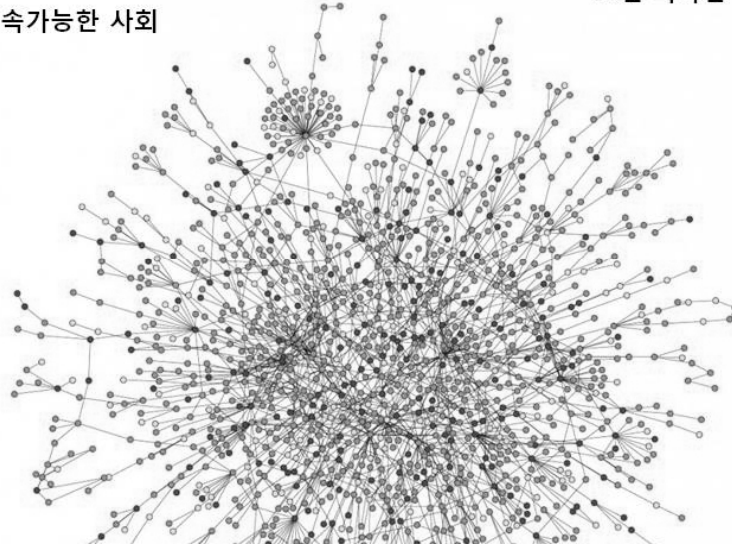
더불어 살기

호혜적 관계망

지속가능한 사회

자발성의 씨앗에  
나눔의 물을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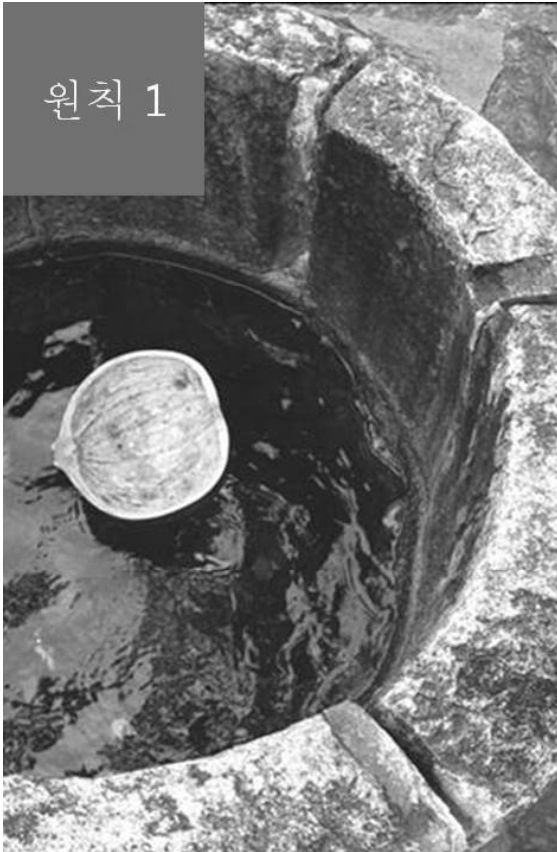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 펀더멘탈  
소셜 디자인



## 구조



## 원칙 1



#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당사자중심

-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
- 멘토는 멘토일 뿐
- 지속가능성은 당사자의 결의와 시행착오로부터

### 작은나무 카페

-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들 : 베스킨라빈스를 먹일 수는 없다
- 5명의 엄마들 1,000만원씩 출자
- <진환경아이스크림 전문점 그늘나무> 창업, 모험을 시작하다
- 역시 장사는 만만치 않고 엄마들의 풀나눔이 쉽지 않다
- 한 엄마가 책임지는 1인 가게로 전환, 이후 한동안 문을 닫다
- 성미산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의 체험과 교육을 위한 가게로 전환
- 계속되는 시행착오, 마을 몇몇의 엄마,아빠, 마을카페를 제안하다
- 마을사람들의 소액출자로 마을카페 <작은나무> 개업
- 마을에 임터가 생긴다

한땀두레 - 바느질을 좋아하는 엄마들

비누두레 - 아토피가 걱정이었던 엄마들

성미산밥상 - 요리사가 꿈이었던 아빠

마을아카이브 - 마을역사가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운 1세대 아빠

## 원칙 2



#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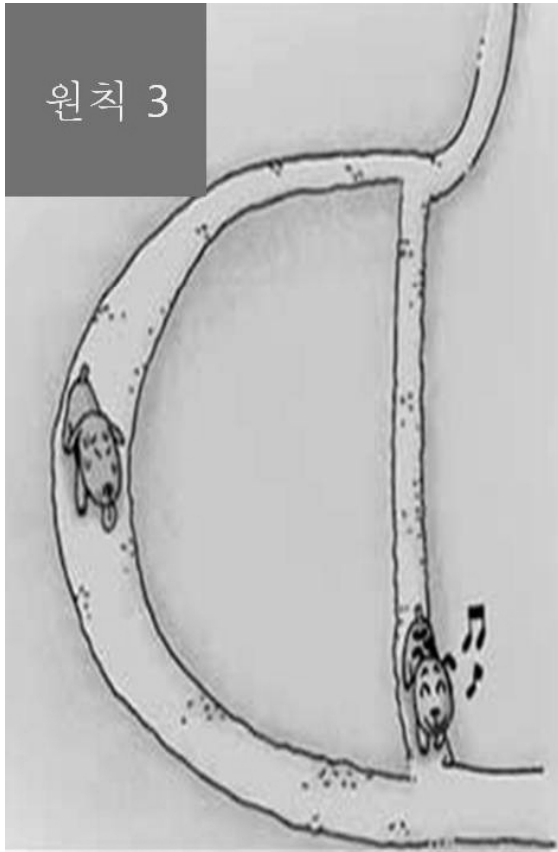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제

-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 한 사람의 열 걸음, 열 사람의 한 걸음
- 문턱을 낮추면 참여하기가 쉽다

### 탈락의 문화가 아닌 더불어 문화

- 다수결 제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
- <마을>이라는 곳은 빨리 무언가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과 달리 느리지만 하나하나 쌓이는 과정이 중요
- 합의는 대체로 낮은 자원에서 동의를 구하게 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 원칙 3



## 안되면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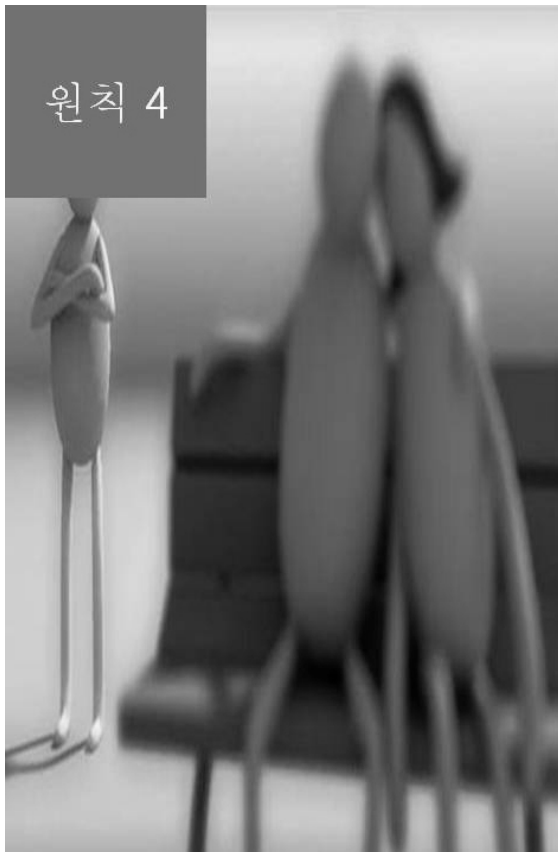
유연하지만 한결같이

- 원칙은 의미있게 깨질 때 아름답다.
- 경험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 고지를 점령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네?

### 대동계

- 실험을 만들어보자
- 법적 절차 까다로운데다 행정과 운영에 발목 잡히지 않을까?
- 그냥 옛날 시골의 <계> 같은 건 어때?
- 켓몬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 그럼 다른 방식도 한 번 생각해보자...
- 형식은 은행처럼 하고 노는 건 켓몬처럼...ㅎㅎㅎ

## 원칙 4



## 부러우면 지는거다

즐겁게... 당당하게

-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변하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자
- 그렇게 좋은 일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ㅠㅠ
- 중산층운동?...

### 공동육아가 가져다 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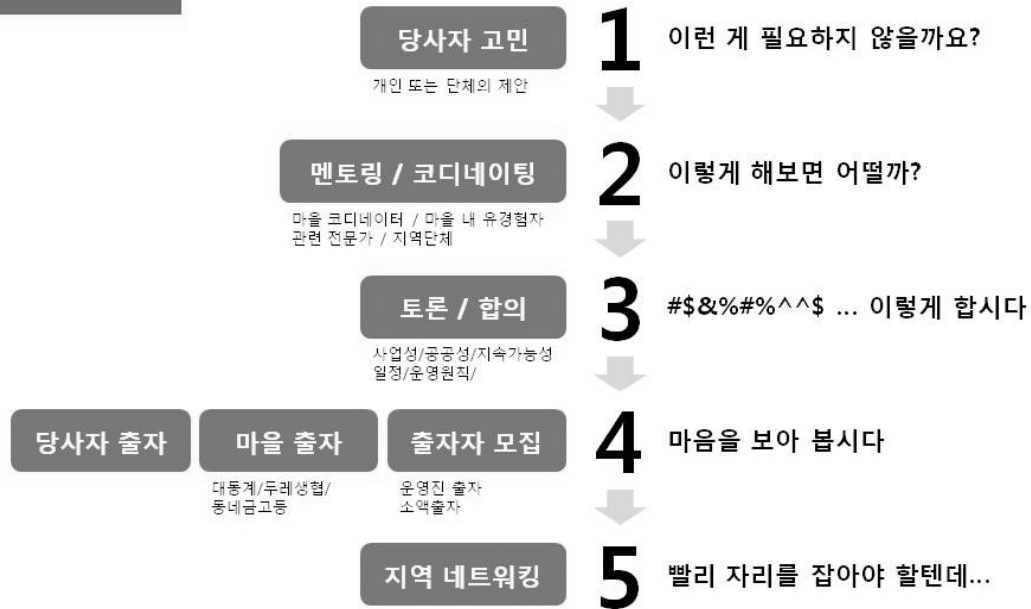
- 성미산 엄마아빠들, 주변 어린이집들을 괴롭히다
-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먹는 걸 신경 써야 하는데..."
- "여기는 유기농 먹이죠?"
- 주변 어린이집들, 친환경재료를 쓸 수 밖에 없다.
- 생협, 매출이 늘다

### 사회적 기업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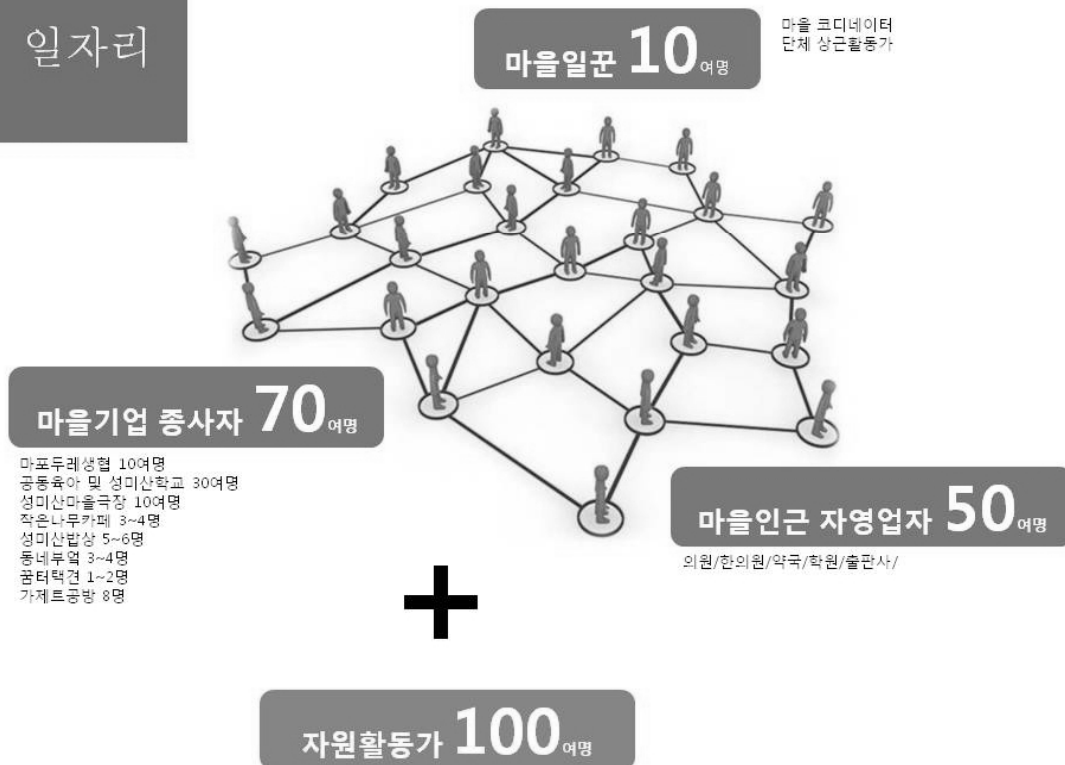
- 야, 너는 돈 좀 되는 일을 해라...
- 하다 보면 되겠지... 보람도 있고 좋잖아...
- 무한경쟁에 지친 경영자들, 술술 공감해하다.
- 잘 돼가?... 잘 버틴다?...
- 조금씩 좋아져... 이미지가 괜찮은 가봐^^
- 그런 건 어디 가야 정보 좀 알 수 있냐?
- 한 발짝... 사회적 걸음을 내딛다.

## 흐름

## 마을기업 Process



## 일자리



## 사례 1

## 성미산 대동계

성미산대동계는  
우리가 같이  
한 코 한 코 짜나가는  
경제의 그물망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성미산대동계의 장점들이 살아나려면  
여럿의 힘을 모아야겠죠.  
성미산대동계가 활짝 꽃피우려면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들의 힘으로 일궈가려는 성미산대동계.  
그 경제적 그물망, 신뢰의 그물 한 코 같이 드시렵니까?

### 가 입 신 청 서

- 1) 이름 :
- 2) 전화번호 :  
주소 :  
E-mail :
- 3) 매월 출자 금액 : 3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4) 은행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성미산대동계가 지향하는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회원이 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미 산 대 동 계  
대 표 귀 하

### 2007년 태어나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경제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하려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바람들이 있었습시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  
마을금고의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자,  
의지들이 있었습시다.  
2005년 8월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실험이나 새마을금고 대신  
성미산대동계라는 씨앗 하나 심었습니다.

### 자라다.

여럿의 관심이 축적한 물줄기가 되고  
여럿의 참여가 마듯한 햇살이 되고  
여럿의 나눔이 시원한 바람이 되어  
성미산대동계는 자라났습시다.  
2010년 현재 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시다.  
성미산대동계는  
회원들의 애경사와 친목을 쟁길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출자와 후원 등으로  
마을의 뒷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든든한 성미산대동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동계의 조합원이 100명, 2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날이  
반드시 와 성미산 지역 구성원들의 대동 세상을 만드는 큰 가동이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아직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지해가 보태지면 대동계는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시다...(성미산대동계 카페에 올린 계주의 글 중에서)

## 사례 2

## 성미산 동네금고

**제1조 (명칭)** 본회는 '성미산동네금고'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성부상조,
2. 회원들의 정착 및 성공,
3. 성미산마을의 다양한 경제 활동 지원,

**제3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둔다.

### 제4조 (사업의 종류)

1. 회원들의 경제적 안정망 구축을 위한 활동
2. 회원들의 정착 및 성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성미산마을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 제5조 (회원 가입)

1.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가 정한 회원 상호간 안전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 제7조 (탈퇴)

1. 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해야 한다.

### 제8조 (연정망 구축사업)

1. 회원은 해당 회에서 가용 가능한 금액을 경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모아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해당 회원들의 실제 금액을 심사 후 대출해 준다.
3. 회원은 일체 금액을 본회에 예치할 수 있다.
4.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공동 경비 중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 제9조 (회원들의 정력적 성공을 위한 지원사업)

1. 회원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2. 회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3. 성미산마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제10조 (총회와 운영위원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절반 이상의 참여와 절반 이상의  
한성으로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를 두어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한다.

### 제11조 (임원)

1. 본회는 대표, 총무와 2인의 운영위원을 둔다.
2. 감사 1인을 둔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대표는 본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총괄한다.
5.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 총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끝>

### 사례 3

### 동네부엌



2002년 5월  
8명의 엄마들  
유기농 반찬가게를 만든다



2008년  
햄, 도시락등 식품제조공장 설립  
생협등에 납품



200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식당급식



2011년  
친환경도시락 전문점  
<소풍가는 고양이> 멘토링, 협력



### 사례 4

### 되살림가게

**되살림 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자원을 되살리고 환경을 되살리고 관계를 되살리는  
되.살.림.가.게.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만든 재사용가게  
녹색가게예요. 지역화폐인 두루가 통용되는 지역화폐 시범 사용 1호점!  
자원활동가들이 요일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네요.

월화수목금토 요일을 달리해서 매장을 지켜주는 자원활동가들이 없다면  
활동의 품을 받지 않고 보람을 가져가는 것으로 족한 자원활동가들이  
없다면 되살림가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을까 싶어요.

수익을 내서 마포희망나눔을 통해 낮은 곳을 향한 나눔의 물로 흘러들고  
마을에서 출자 받은 금액을 갚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마을의 또 다른 의미있는 공간에 출자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3시간만 되살림에 내어주고 보태줄 사람  
되살림가게로 와서 딱 붙으세요. 전화번호 02)332-9550  
문 여는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구요.  
까페 주소 <http://cafe.daum.net/sungmisanshop>

**되살림 지역화폐**  
**1000 두루**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0일 ~ 10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0일 ~ 10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0일 ~ 10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캠퍼스 2012년 10월 10일 ~ 10월 15일





## 사례 5

## 성미산 밥상

-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라는 사업으로 친환경 식당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반영

- 성미산밥상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부모들의 자발적 사업

- 안심하고 언제나 찾아와 맛있고, 몸에 좋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초기출자자 10명 결함으로 2009년 봄 공동 모색 시작

- 요리강좌 및 친환경 식당 탐방 활동 등으로 1년 준비모임후 2010년 4월4일 오픈

- 90여 개인 및 단체의 출자로 이루어진 마을기업  
- 마을 (학교, 터전) 가족들의 각종 모임 장소  
- 즐거운 일터와 수익을 통한 확대 재생산, 마을의 인적 자원을 엮어 일터를 만든다.



### 김요리사의 요리, 네번째 강좌



#### 새콤달콤 깐쇼새우 ~~

- 하늘날 - 9월 19일 (토) 오후 6시 - 8시
- 하늘곳 - 성미산학교 1층 미니샵
- 준비물 - 개인접시, 컵, 숟가락, 강좌비 1만원 (초등학생, 어른 모두 1인당)
- 강좌예약 - <http://cafe.daum.net/sungmisanorganic>
- 강좌문의 - 기린 011-695-7838

\*\* 음식 재료료비와 공간 사용료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성미산대책위에 기부합니다.\*\*





##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센터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otentials in connecting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with the social enterprise

김종수(Kim Jong Su)\*\* · 김태영(Kim Tae-Young)\*\*\*

###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demonstrate potentials in connecting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with the social enterprise.

First, this paper researched for what the meaning of the social enterprise is exactly and scrutinized current condition of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Next, we examined a current problem in operating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and suggested a connection with a social enterprise as an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The reason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and a social enterprise needs mutual connection, which is significant for drawing participation of a local resident out.

Following shows why this mutual connection is important.

First, all social enterprise was based on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births, and can supplement the role of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with these aspect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to utilize social enterprise to extend the current roles and scopes.

Next, this study discussed concretely the way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can build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cial enterprises.

These series of discussions shows that there must be the social enterprise to make a partnership in the community and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utilize the social enterprise.

Keywords : social enterprise(사회적기업),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주민자치센터), local community(지역사회)

\*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srevo21@naver.com)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tkim@uos.ac.kr)

## I. 서론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이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형식으로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영미권의 커뮤니티 센터 혹은 아트센터가 지역주민들의 협의 및 상호작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민관 협력의 지역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설치되었다(이선미, 2005;174). 그러나 많은 논의들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의 바탕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에 퍼져 있고, 잘만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사회적’인 성격과 ‘기업’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살펴봄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지역공동체의 강화와 공동체 내의 문제 해결에 이점을 가짐을 보여주고, 둘째,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연계가 지역공동체의 통합적인 측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정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주민자치의 장으로서의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센터

### 1. 사회적기업

#### 1) 의미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80년 간디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빌 드레이튼이 기업가로서의 열의와 열정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모두 갖춘 개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 후원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들(social entrepreneurs)’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초기의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라는 과정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여러 대학의 MBA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다루게 되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사회적기업의 의미는 ‘사회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NGO에 의해 수행되는 비즈니스 활동 또는 전략(Social Enterprise Alliance, 2002)’, 또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NPO기업,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SEKN)’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의미는 사회적 목적에 복무하는 시장지향적인 경제활동을 언급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으로 남아있다(Defourny, 2005; 엄형식, 2007).

사회적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영국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것을 들 수 있다. DTI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의 대부분을 주로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즉, 사업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DTI, 2002)’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조직을 말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DTI, 2002).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인 측면과 ‘기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사회적’이고 어떠한 점이 ‘기업적’인 측면인지 용어의 의미를 재고찰 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경영 전략으로 조직된, 공익 지향적인 비특정 민간 활동(any private activity)으로서, 이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특정 경제, 사회적 목표 실현이며,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와 관련된 혁신적 해결 방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활동”을 지칭한다고 밝히고 있다(OECD, 1999; 심창학, 2007).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business)이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상업거래에 참여하는 독립적(self-sustaining) 기업이며, 이들의 핵심 목표는 사회적·환경적 성격을 가진다”(SEC, 2003).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정

의하는 데 유용한 특성들이 많이 있다. “재화 생산, 서비스 공급 등 시장경제에 직접 참여하며” “고용창출, 교육훈련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등 명시적인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창출된 이윤은 “보통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투자된다”(SEC, 2003)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특성 중 하나는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로서,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 및 소유체제가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 또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 조직이다”(SEC, 2003; Hines, 2005 재인용).

사회적기업의 ‘기업적’ 특성은 다음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기업 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이 재화 생산 및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하며, 안정적인 상업 거래 활동을 통해 거래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Allan, 2005)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떠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생산된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2) 주민자치와 사회적기업

사전적으로 ‘주민’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자치’는 제 일을 스스로 다스려 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림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 및 소유체제가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 또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 조직”이라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미루어볼 때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의 연관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을 ‘고객’의 입장을 넘어 ‘공동생산자(co-producer)’로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역할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들 간의 관계자본이 ‘시민적 자본’으로 치환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단순히 정책의 수용자로서 스스로를 생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필요한 재화를 직접 생산해 나가는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Pestoff는 이에 대해 세계화,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계층이 배제당하는 때에 비영리조직과 자발적 단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시민성의 자각과 시민의 공동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estoff, 1998; 51). 특히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권을 기업 참여자가 1인 1표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의 속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세

금징수 같은 의무를 동등하게 짊어짐을 전제로 한다. 즉 권리만큼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생산자로서의 참여와 그 생산의 혜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민권의 정신을 잘 살리고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은 정책참여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저소득층을 서비스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역할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자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시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얼마나 구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실제로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 경제적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연결망을 주도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것의 일차적 기능이 무엇이건 간에, 독립적인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분권적 경제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유지에 매우 친화적이다(Dahl, 1998; 이재혁, 2007; 250)”라는 말은 시장에 속해있지만 대안 경제를 창출하고 형성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sup>1)</sup>.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구축(Community Building)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목표는 시민들 사이의 공동의 비전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하미승·강황선, 2002;50).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이러한 점이 가능할까?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한발 물러나 책임성·반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 잡힌 고려를 하기 때문이다.

Defourny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 i)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성의 정도가 높다. ii)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iii) 일단의 시민들에 의해서 주도권이 행사된다. iv)고객 등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적극 참여한다. v) 영리 극대화의 동기를 따르지 않으며, 이익의 상당부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Borzaga and Defourny, 2001:17).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의 보다 많은 파트너와 자원을 유인에서 지역 내에서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시장, 공공영역,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며 활동하며, 경제적 행위를 사회적 미션과 연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

1)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국내 토종기업이라고 하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서울의 본사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에서 경제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사회적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참여적 그룹’ 내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높일 때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역 내 정책결정에 유연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민들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면서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의 질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당국에게 상품의 질 관리와 이에 대한 공공기금을 확보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직접구매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상품구입에 따른 자체적인 연결망을 가짐으로서 지역 내에서 상호교류하며 ‘자치’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활동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참여를 이끌어 낸다.

###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처럼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신뢰’이다. 신뢰는 크게 나누어 사적신뢰와 공적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 신뢰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이다. 그리고 공적신뢰란 사회 내의 제도나 체제 또는 규준 등에 관한 신뢰로 주로, 그것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실행성에 대한 믿음이다(김일태, 2001; 111). 지역사회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적 신뢰이다.

인간의 제도 신뢰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제이다.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내 신뢰가 쌓인다는 것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신뢰는 사회 내 관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뇌물, 뒷거래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유지의 기제로서의 신뢰를 보았다면 다음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호혜성의 규범이다. 콜만은 상호부조의 규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호부조의 규범이란 상호부조의 ‘호혜적인 성격’과 ‘규범’ 두 내용을 포함한다. 규범은 사회적 지원이나 지위, 명예나 다른 보상 등에 의해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Coleman, 1988; 홍현미라, 2006; 69 재인용). 상호부조의 호혜성은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공동체의 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동체에 헌신하고 공동체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배신하고 떠나가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동체에 개인의 삶의



터전과 미래가 주어진다면 더욱 그러하다<sup>2)</sup>.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실상은 어떠할까? 우리 사회가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화폐자본 및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or SOC)의 개발에는 주력했지만, 사회적 제도의 신뢰와 도덕성이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는 소홀히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 가능한지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가장 용이한 곳은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토크빌의 고전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의 근거를 발견한다. 토크빌은 (1830년대 시점에서) 미국적 민주주의의 성공의 열쇠를 바로 자발적 시민 결사에서 찾고 있다. 그는 미국이 갖는 우발적인 지형학적 요인, 법치와 삼권분립에 기반 한 헌정 질서, 그리고 초기 정착기부터 이어온 자치 관행의 습속 등 세 가지를 꼽으면서 이중에서도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바로 시민적 자치의 습속을 들고 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활발했던 시민 결사에 대해 토크빌은 표현하기를, “미국인들은 모든 연령에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유형의 기질이라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결사를 맺고 있다”고 표현한다(이재혁, 2007; 238).

시민사회가 전체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논의는 퍼트남의 논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퍼트남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개인적 신뢰라고 하면서 이러한 신뢰는 구성원들에게 협력이라는 내부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퍼트남에 따르면 개인적 신뢰가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신뢰는 사회적 신뢰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과 시민 연대적 연계망이 필요하다고 한다(김태영, 2001; 47). 또한 퍼트남(1993)은 이탈리아의 각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장기간에 걸친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각 사회의 정치·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지역공동체를 장기간 비교 연구한 결과 지역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이 후원이나 보호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조직된 시민공동체 조직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김준환, 2004; 98).

김태영(2001)은 이러한 고전적인 논의들에 관하여 종합하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자발적 조직이 신뢰성 있는 조직이

2) 이와 관련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일탈 행위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며, 규범이 있고 연계망을 갖추고 있다면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연계망의 경우 닫힌 연계망이 아니라 열린 연계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태영, 2001).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시민사회내의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들이 사회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만약 본문에서 논의할 사회적기업이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원이 유입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공론장을 이루면서 활동한다면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주민자치센터

### 1) 의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좋은 주민이 되는 방법의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작은 정부의 구현과 공동체 행정, 즉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지역주민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김일태, 2003). 자치단체와 주민이 서로 동등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민관공조를 잘 구축해두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부의 각종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커뮤니티센터 등 서구의 사례와는 달리 주민의 자발적 조직에 의해 아래로부터 조직된 것이 아니라,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위로부터 설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이선미, 2005; 183).

### 2)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인력과 소요예산을 확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우룡, 2007).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와 먼 거리에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부족하며,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거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

인 가치인 ‘자치’가 침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sup>3)</sup>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문제를 보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과거 동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관변단체 출신이고 전문가는 부족하며, 취약계층의 참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대표성,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역할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 주민자치센터라는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주민자치의 전부가 아니다. 다만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 중 센터라는 특별한 장소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에 한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방식에 대한 고민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2-1〉 직종별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 (2002-2006)

(단위: 명, %)

연도	센터수	위원수	자영업	직능단체 (새마을협 의회등)	통반장	주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기타
2002	515	9,675 (100)	3,213 (33.2)	2,376 (24.6)	523 (5.4)	1,296 (13.4)	656 (6.8)	
2003	518	11,236	3,511	2,992	768	1,453	599	
2004	518	11,219 (100)	3,396 (30.5)	2,952 (26.5)	758 (6.8)	1,454 (13.1)	625 (5.6)	
2005	518	11,621 (100)	5,353 (46)	2,717 (23.4)	808 (6.9)	2,460 (21.2)	704 (6.1)	
2006	519	11,312 (100)	5,139 (45.4)	2,714 (24)	804 (7.1)	2,490 (22.0)	838 (7.4)	

※ 2007년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구분이 달라 포함시키지 않았음

출처: 서울특별시, 2002~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3) 본 연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실태 분석은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실행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센터의 실제 업무들은 유료강사 또는 무료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자원봉사자는 약 9만 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분야는 프로그램 강사가 2,454명(2.7%), 프로그램 운영보조 11,223명(12.2%), 시설관리 619명(0.7%), 기타 1회성 행사에 참여 봉사자가 77,372명(84.4%)이다. 즉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 운영보조자, 시설관리, 1회성 행사 참여 봉사 등 단순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혹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여기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는 업무가 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치와 거리가 멀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어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개발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표 2-2〉 자원봉사자 현황 (2002-2007)

(단위: 명, %)

연도	센터수	계	성별		활동분야				
			남	녀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조	시설관리	기타단순 봉사 등
2002	515	8,277 (100)	1,898 (22.9)	6,379 (77.1)	1,103 (13.3)	100 (1.2)	2,428 (29.3)	919 (11.1)	3,727 (45)
2003	518	20,941	5,869	15,072	1,559		8,915		10,467
2004	518	30,931	11,687	19,244	1,466		11,096		18,373
2005	518	53,402	19,980	33,422	1,671	3,339	5,643	2,725	40,024
2006	519	58,042 (100)	21,769 (37.5)	36,273 (62.5)	1,787 (3.1)	3,343 (5.8)	5,702 (9.8)	2,296 (3.9)	44,914 (77.4)
2007	516	91,668 (100)	34,558 (37.7)	57,110 (62.3)	2,454 (2.7)		11,223 (12.2)	619 (0.7)	77,372 (84.4)

출처: 서울특별시, 2002~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02년 5,231개에서 07년 10,480개로 연도별 약 18%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능분야별 점유비율은 6년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 대비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4,255건(40.6%)으로 단연 많았고, 그 내용은 요가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이다. 시민교육분야는 1,864건(17.8%)으로 교양강좌, 컴퓨터교실, 한자교실, 어학교실 등이 그 내용이다. 지역복지분야는 1,274건(12.1%)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노인 관련 지원 행사, 건강 증진 등이다. 주

민자치분야는 1,194건(11.4%)으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법 활동 등이 있다. 지역사회진흥분야는 1,268건(12.1%)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청소년 교실, 내집앞 청소 등이다. 주민편익분야는 616건(5.9%)으로 회의장, 집회장, 헬스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도별 추이에서 주민자치분야와 지역복지분야가 각각 4.4배, 2.9배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획일화되고 편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체의 문제와도 다시 연결된다.

〈표 2-3〉 프로그램 현황 (2002-2007)

(단위: 명, %)

연도	센터수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2002	515	5,231 (100)	272 (5.2)	2,339 (44.7)	432 (8.3)	450 (8.6)	1,313 (25.1)	343 (6.6)	82 (1.6)
2003	518	5,358 (100)	288 (5.4)	2,710 (50.6)	300 (5.6)	409 (7.6)	1,165 (21.7)	361 (6.7)	125 (2.3)
2004	518	6,669 (100)	592 (8.9)	2,636 (39.5)	648 (9.7)	515 (7.7)	1,528 (22.9)	611 (9.2)	139 (2.1)
2005	518	8,370 (100)	776 (9.3)	3,360 (40.1)	852 (10.2)	520 (6.2)	1,899 (22.2)	747 (8.9)	216 (2.6)
2006	519	9,424 (100)	968 (10.3)	4,147 (44)	1,002 (10.6)	547 (5.8)	1,854 (19.7)	820 (8.7)	86 (0.9)
2007	516	10,480 (100)	1,194 (11.4)	4,255 (40.6)	1,274 (12.1)	616 (5.9)	1,864 (17.8)	1,268 (12.1)	9 (0.1)

출처: 서울특별시, 2002~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2007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1일 평균 115,783명으로 서울시 총인구의 약 1.1%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다시 성비에서 여성 84,023명(72.6%), 남성 31,772명(27.4%)으로 여성이용자가 남성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성인여성이 59,829명(51.7%), 어린이 및 청소년 22,619명(19.5%), 성인남성 17,890명(15.5%), 노인(65세 이상)이 15,297명(13.2%) 순으로 성인여성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02년 70,481명에서 07년 115,783명으로 매년 약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이용자는 노인층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역복지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표 2-4〉 이용자 현황 (2002-2007)

(단위: 명, %)

연도	센터수	1일평균 이용자수	성별		계층별				
			남	녀	어린이 청소년	성인여성	성인남성	노인	기타
2002	515	70,481 (100)	16,504 (23.4)	53,977 (76.6)	16,064 (22.8)	41,665 (59.1)	7,359 (10.4)	5,156 (7.3)	237 (0.4)
2003	518	88,424 (100)	22,108 (25)	66,316 (75)	24,256 (27.4)	47,679 (53.9)	9,570 (10.8)	6,281 (7.1)	638 (0.7)
2004	518	80,153 (100)	18,764 (23.4)	61,389 (76.6)	14,821 (18.5)	45,819 (57.2)	9,353 (11.7)	9,761 (12.2)	365 (0.4)
2005	518	92,420 (100)	23,811 (25.8)	68,609 (74.2)	24,121 (26.1)	44,910 (49.1)	12,563 (13.6)	10,460 (11.3)	366 (0.4)
2006	519	97,130 (100)	25,725 (26.5)	71,855 (73.5)	23,298 (24)	48,390 (49.9)	13,340 (13.7)	11,315 (11.6)	787 (0.8)
2007	516	115,783 (100)	31,772 (27.4)	84,023 (72.6)	22,619 (19.5)	59,829 (51.7)	17,890 (15.5)	15,297 (13.2)	303 (0.3)

출처: 서울특별시, 2002~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위 프로그램 내용과 이용자 실태는 소외계층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중산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구조를 말해준다. 이를테면 성인 여성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고, 이 중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복지 분야보다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의 비중이 훨씬 높다.

다음 문제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로 충당이 되고 있다. 예산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의존 구조는 다시 한 번 주민자치센터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스스로 예산을 마련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자체는 당연히 지속되어야겠지만 대신 주민자치센터 스스로가 독립적인 사업 기획과 예산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여 지원받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한다는 기존 사고를 버릴 필요가 있다. 센터는 모든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 구심점이 되는 곳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은 오히려 지역의 여러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연결시켜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될 때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운영이 가능하다.

### Ⅲ. 연계 가능성 모색

#### 1. 사회적기업의 지역접근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지역접근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혹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태동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지역기반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큰 축을 이루던 협동조합, 자활, 그리고 노동문제 관련 NGO를 바탕으로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그 특성상 지역 혹은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 내 고용 문제해결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특히 시민사회운동 측면의 경우 1997년 IMF 사태 이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노동자협동조합, 마이크로크레딧, 실업극복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실험,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석호원, 2007:

〈표 3-1〉 한국 사회 사회적 경제의 흐름 유형

	등장배경	추진주체	주요 경제활동방식	대표적 협의 기구
노동자 협동조합	도시빈민운동차원에서 불안정고용문제의 해결이나 철거 후 세입자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	도시빈민철거 세입자부도, 폐업후의 노동조합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조적 협동조합 방식	한국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 준비 위원회
실업극복 단체연대	IMF사태 이후 장기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 시민단체가 비영리조직으로서 고용창출 사업에 참여	노동운동단체, 실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에 의한 공공근로, 민간위탁 기타 실업극복을 위한 비영리활동	전국실업극복단체 연대회의
자활 후견 기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자활지원센터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담당기관으로 지정됨	도시빈민운동단체 실업극복시민단체 지역사회복지관	기초법상 규정된 협동조합방식의 자활공동체 운영, 기타 사업단 방식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출처 : 석호원(2007) '사회적기업과 NGO의 노동통합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p37

37). 이러한 흐름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전신이 되는 위와 같은 단체들도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주로 지역기반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각 조직들은 그 이점 때문에 지역기반을 조직운영원리로 채택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기반을 선택할 때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처음부터 전국시장이나 해외시장의 개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가급적 지역 내 수요에 기초를 두고 생산과 영업의 발전을 꾀하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끌어간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지역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원들을 동원(mobilize)하고 이들 자원들 간의 통합(synthesize)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쉬운 예로 로컬푸드(local food)와 같은 사업이 왜 지역 내에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세계화 논리라면 풍요로워야 할 지역경제가 오히려 피폐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해 ‘바로 옆 동네의 신선한 과일을 사다먹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왜 먼나라의 농약 친 과일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가?’, ‘나도 건강하고 내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제로부터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기업이 번창하여 기업 내 구성원의 이해욕구를 충족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개개인의 욕구가 전체 지역의 발전에 배태(embedness)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말해 단순히 개별적 사회적기업의 생존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망이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sup>4)</sup>.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경제망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다시 영향을 준다.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존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원동원을 용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행위자의 참여, 즉 파트너십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학 또는 시민단체, 지역민간단체들의 파트너십은 자원동원의 의미를 넘어 보다 더 정확한 지역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4) 이와 유사한 예로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들 수 있다.



셋째,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은 지역개발 혹은 마을 만들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정체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주민자치의 실현은 사회적기업이 노동과 생활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내의 새로운 발전전망으로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국내외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경제의 한계를 딛고 넘어서 인본주의적인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 2. 주민자치센터의 사회적기업 연계 가능성

전통적으로 어느 사회든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는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든 멀고도 가까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확히 하는 가운데 파트너십도 올바른 위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어떻게 ‘창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느냐가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연계도 센터가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확장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도 주민자치센터가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대상이 중산층 주부들에게 집중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을 통한 네트워킹의 경우에도 주로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단체들에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이선미, 2005:198).

이러한 배경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주민들 네트워크에 중심이 된다. 사회적기업은 존재 특성상 소외계층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다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그 이윤을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기업을 활용한다면 현재 지역

5) 실제로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재통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전체 또는 마을 차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개입으로서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둘째, 경제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 셋째, 공동체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을 지역경영에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창출한다(엄한진, 안동규, 2009)

내 주민자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주민들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민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부구조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서 주민자치센터는 그 자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소외되는 계층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수혜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기업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기업적’ 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동네에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제빵 기술을 가지고 빵집을 운영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역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시민들은 사회적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마을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동네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시민적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시민적 주체성과 동떨어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기업 연계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의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한 마을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지를 택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적기업은 그 존재목적상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도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 노동 통합의 영역 이외에, 사회서비스(또는 대인 서비스) 전달,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이라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엄형식, 2007; 154).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자치를 바탕으로 운영되려면 사회적기업의 이러한 속성을 파악하고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주민들에게까지 효과를 넓힐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론에서는 조직 내 회원들 간의 강한 결속이 오히려 조직 밖의 사람들과의 결속을 약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연대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 내 회원들 간의 약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 조직과 조직 간의 약한 연대, 그러나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소외가 없는 상태를 더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이선미, 2005;199). 주민자치센터도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면 마을 전체 행위자들의 연결을 더욱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 주민의 연결과 사회적기업간의 연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연결을 용이하하게 가져간다면 전체 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 3. 실제 연계 전략

본 절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기업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기업과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계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 혹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글이나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조례제정은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연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치구, 또는 의회 수준에서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책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신경희, 2008; 36). 사회적기업을 우리 사회의 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경제생태계가 좀 더 다른 대안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하는 지자체를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성실히 수행하는 지자체에 보조금 등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사회적기업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듭강조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성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만으로는 접근의 한계가 있는 사회적인 통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 소모임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에게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도 이러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회의 공간 확보, 지원비 확보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지역 내 사회적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게 최근 동사무소를 통합하고 남아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어찌피 남아있는 공간을 사회적기업에게 약간의 임대료를 받고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자체는 유휴공간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광고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노동부 등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광고를 하고 있고 이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마을)버스, 케이블 방송 등에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광고를 지원한다면 그 결과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이해시키고 사회적기업도 좋은 이미지 형성할 수 있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한다면 사회적기업이 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홍보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상품이 소개되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 나눔 시장 형태의 장터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시장에서 경영상의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 IV. 결 론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얼마나 주체로서 참여를 하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그런데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주체의 자발성이 매우 떨어지고 주된 참여자가 한정된 계층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장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간의 연계는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의 구체적인 방안

으로 조례지원, 지역민에 대한 홍보, 공간제공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노동부의 인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기업 등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1,000개나 만들겠다고 하는 등 그 논의의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분명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이러한 흐름이 혹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의 싹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확산되려면 정부·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과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센터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계 모형과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전직 유명 학원강사가 사교육의 폐해를 깨닫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저렴한 가격에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이 정착될 때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실질적인 사례들을 연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추후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달수, (2008).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구조와 사례”. 「지역재생의 새로운 해법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창립포럼 자료집
- 김일태, (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

- 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원 엮음: pp. 105-128
- \_\_\_\_\_. (2003).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방안”, 「도시행정학보」 제16집,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태영. (2001). “자발적 조직과 사회적자본”.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원 엮음: pp. 41-70
- 노길준. (2007).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본 사회적기업 현황”. 「제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발표집」. pp. 2-10
- 노대명 외. (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2006).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세미나 발표자료」,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협약식(2006.4.13)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pp. 35-71
- 문보경. (200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모색”.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자료집」 pp. 1-23
- 방영준. (2007). “공동체의 본질과 실현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64: pp. 103-127
- 석호원. (2007). 「사회적기업과 NGO의 노동통합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경희. (2008).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08.10.14)
- 심창학. (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pp. 61-85
- 엄한진 · 안동규. (2009).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인 지역개발 패러다임: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09.6): pp. 517-526
- 엄형식. (2007).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 및 시사점-”. <제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발표집>.
- 이선미. (200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와 NGO」 3(1): pp. 173-205
- 이우룡. (2007).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시장적 관계모형”. 『사회와 이론』 10: pp. 213-261
- 장원봉, (2005).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운동의 모색”. 『도시와 빈곤』 73: pp. 124-139
- \_\_\_\_\_.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나눔의 집
- \_\_\_\_\_. (2007).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pp. 5-34
- 정덕주 (역). (1995). 『도시와 지방자치』, B.로스, M. 스테드만(저). 나남출판
- 정선희, (2004). 『한국의 사회적기업』, 다우
- \_\_\_\_\_. (2006).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와 빈곤』 80: pp. 64-74
- 정윤희, (2008). “지역 재생의 새로운 대안,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키우자”. 『지역재생의 새로운 해법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창립포럼 자료집 pp. 38-42
- 조영복, (2007).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와 과제”. 『노동리뷰』 35: pp. 48-57
- 최병두, (2007). “지역공동체와 지역정체성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자료집』 pp. 27-65
- 하미승 · 강황선, (2002).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지역사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4): pp. 47-74
- 홍현미라, (2006). “지역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경험의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pp. 65-92
- \_\_\_\_\_. (2008).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역사회자본 재구조화”. 『사회과학논총』 23(2). pp. 1-21
- 황덕순, (2004).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국제노동브리프』
- 서울특별시,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서

- Aiken, Mike. (2007). "What is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finding, creat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for disadvantaged groups?" A social enterprise *think piece for the Office of the Third Sector*. The Cabinet Office, U.K
- Allan Tupper. (1978). "Public Enterprise as Social Welfare: The Case of the Breton Development Corporation". *Canadian Public Policy* Vol.4, No.4 pp. 530-546
- Borzaga, Carlo & Jacques Defourny (ed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Coleman.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 Defourny, J &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Routledge. London.
- DTI. (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 Etzioni, Amitai, (1993). *The Spirit of Community*. A Touchstone Book
- \_\_\_\_\_. (1996). "The Responsive Community: A Communitarian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1. No.1 pp. 1-11
- Frances Hines, (2005). "Viable social enterprise - an evaluation of business support to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 1. Issue1. pp. 13-28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22, No. 1. pp. 7-20
- Nicholls, A.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New Model of Sustainable Soci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OECD
- Pestoff, V. (1998).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shgate.

(논문접수일 : 2010.01.26 / 심사완료일 : 2010.03.23)



---

CDI세미나 2011-20

제4차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사례 연구**

---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http://www.cdi.re.kr)

■ 인쇄일 : 2011. 5. 2

■ 인 쇄 : 예로니모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